



이번 마라톤대회는 건설관련 기업 및 단체 회원 오전여명이 참가한 대회로 우리협회 양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은 전원이 완주하며 협회와 건축사를 홍보하고 회원 간에 우의를 다졌다.

• 문의 : 건축사마라톤, cafe.daum.net/GunDAL

2011 추계 서울건축사축구대회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축구동호회는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해 지난 9월 22일 송파구 마천동 천마공원 축구장에서 '2011 추계 서울건축사축구대회'를 개최했다.

강남구·관악구·마포구·서초구·송파구 5개구 축구동호회에서 1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우승은 서초구축구동호회가, 준우승은 송파구축구동호회가 차지했다.

건축사마라톤동호회, 마라톤대회 참가 및 박용길 회원 회장 선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마라톤 동호회는 지난 10월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영동대로에서 개최된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마라톤 대회에는 전국 회원과 가족 50여명이 참가했으며, 대회 종료 후 개최된 건축사마라톤동호회 정기총회에서는 박용길(인석 건축사사무소) 회원이 차기(2012년~2013년) 회장으로 선출됐다.

건축계소식

'2017 UIA 세계건축대회' 서울 유치 확정



2017년 UIA 세계건축대회 개최지로 서울이 확정됐다.

지난 10월 1일 동경에서 개최된 UIA 총회에서 서울은 싱가포르와 멕시코시타를 제치고 '2017년도 UIA 세계건축대회' 유치에 성공

했다.

싱가포르, 한국, 멕시코시타 순으로 진행된 이 날 프레젠테이션에서 한국은 가야금과 일렉트로닉 기타의 조화로운 선율을 배경으로 교묘한 아침의 나라와 다이내믹한 현대의 이미지를 가진 한국의 정체성을 표

현했다. 또한 지하철 자유이용권, 한옥민박 무료제공, 한식상차림과 맥도날드 햄버거의 국내가격비교 등의 현실적인 접근으로 차별화 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투표는 1, 2차로 진행됐는데, 1차에선 서울 125표, 싱가포르 85표, 멕시코시타 44표로 서울과 싱가포르가 2차 경합을 펼치게 됐다. 2차 투표 결과 서울 146표, 싱가포르 106표로 서울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의 이번 도전은 3번째로, 지난 1993년과 2002년에 대회 유치에 도전했었으나, 각각 영국과 일본에 패했었다. 유치단에 참석한 한 건축사는 "총회 전부터 서울의 유치가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였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서울이 압도적인 표차로 이겨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유치를 위해 한국건축단체총연합(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대한건축학회)는 MOU를 체결하는 등 서울시와 다각적인 협조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김종성 건축사(서울건축대표·전 일리노이공대 교수)를 유치위원장으로 선임,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했으며, 해외 주재 대사관의 협조를 얻기도 했다.

UIA는 1948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돼 전세계 123개국, 130만 건축사를 대표하는 세계 유일의 국제 건축사 연합단체로, 3년마다 대륙별로 개최되는 총회에는 건축사 및 학생 등 3만여 명이 참석한다. 차기 UIA 세계건축대회는 201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며,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준비위원회는 '보고 싶은 한국, 가고 싶은 한국,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참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UIA 세계건축대회가 약 4,000억원 안팎의 경제 파급 효과와 5,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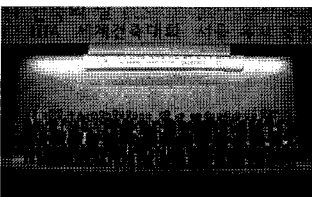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 유치 축하 기념식 개최



한국건축단체총연합(FIKA)은 지난 10월 13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 유치 축하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강성의 회장과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상정 위원장, 김호수 서울시 주택본부장, 김종성 UIA 서울세계건축대회유치위원장, 대한건축학회 이연구 회장 등 정부관계자 및 건축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2011 건축의 날 개최



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대한건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국토해양부·국가건축정책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2011 건축의 날' 행사가 10월 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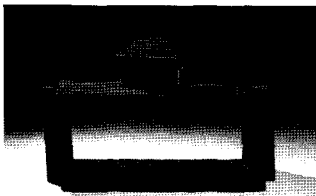
'녹색성장 속의 건축'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의 회장을 비롯한 건축계인사 등 5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올 해는 지난 10월 1일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 유치 확정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도 했다.

올해 건축의 날에서는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을 포함해 총 39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영예의 대통령 표창은 최동규 건축사(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제해성 교수(아주대학교), 김영수 건축사(주.민영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수상했다. 또한 국무총리상은 김석윤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김건축), 김형우 교수(홍익대학교), 장양순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창건축)가 수상했다. 이밖에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표창에 9명,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에 15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에 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은 국가 녹색 성장 동력으로서 건축의 비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정부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올 건축의 날에는 친환경 건축·수해양 건축 관련 전시가 동시에 열렸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정렬 본부장이 'Vertical Farm(수직농장) 융합기술개발사업으로서의 가능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류정곤 실장이 'Vertical Aquaculture(빌딩양식) 산업화 방향'이란 주제로 각각 강연을 펼쳤다.

최승원 회원, 목인갤러리 초대개인전



최승원 회원(앙가주망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이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목인갤러리(박물관)에서 '기도의 집(Imaging Cross)'을 주제로 초대개인전을 연다. 최승원 건축사는 건축설계를 하면서 스케치와 조형작업을 꾸준히 해와 건축개인전과 아트그램에서 2인전을 하였고, 작년 봄에는 목인박물관 갤러리초대전으로 개인전 '목우(木宇Imaging House)'를 전시하여 집의 원초성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건축, 조각, 설치, 그림, 스케치, 사진 등 종합전시이며, 오프닝행사는 10월 19일 17시에 동 장소에서 개최된다.

서울시건축사회 「청년건축사 유니온」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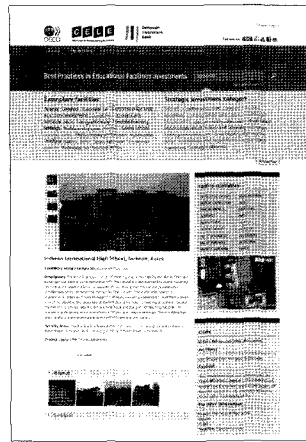


서울지역 젊은 건축사들을 위한 모임인 '청년건축사 유니온' 출범식이 지난 10월 6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청년건축사 유니온은 사무소를 개업한 청년건축사들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사항들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 조직이다.

청년건축사 유니온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70년대 이후 출생 회원 중 단체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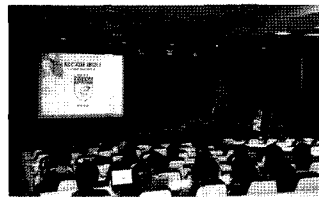
인천국제고등학교 OECD의 CELE 선정

이용선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의 '인천국제고등학교'가 OECD의 CELE(Centre for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s)에서 선정한 2011 선진교육시설의 모범사례 학교시설에 선정되어 OECD홈페이지



지 게시되었으며, 책으로도 출판된다. 'OECD의 CELE'는 교육시설의 질을 개선하여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계획, 운영 최대한의 교육적 효과를 올리기 위한 조사연구,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OECD에 있는 조직으로 1990년대부터 세계 선진적인 교육시설의 좋은 사례를 선정, 소개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1996년(1판), 2001년(2판), 2006년(3판), 그리고 4판이 2011년 후반에 출판된다.

KCC, 건축학과 전공 대학생 대상으로 기술 및 제품 세미나 실시



KCC는 미래 건축업계를 이끌어 나갈 건축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KCC의 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 및 제품들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대

학교를 시작으로 6월 한양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서는 제품 세미나를,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KCC 건축환경연구센터 견학을 실시했다. 이 같은 기술 및 제품 세미나는 지난 9월 고려대와 이화여대, 부경대에서도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학과 학생들에게 KCC의 친환경 건축자재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KCC의 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집약된 KCC 건축환경연구센터 견학을 통해 KCC의 앞선 기술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 같은 세미나가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장학사업 및 산학 협력에 늘 앞장서 온 KCC의 인재양성을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실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9월 21일 KCC는 부경대에서 '친환경 건축 디자인 트렌드'라는 주제로 KCC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 부경대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150여명의 학생들과 교수진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KCC는 세미나를 통해 BIPV 등 KCC가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전방수 석고보드, 진공단열재 등의 건식 INFILL 시스템, 친환경 건축 디자인 트렌드 등을 소개하였고, 참가자들은 KCC의 앞선 기술력과 우수한 제품에 많은 질문을 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부경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건축 재료를 접하는 기회가 매우 중요함에도 그러한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는데, 국내 건축자재 대표 기업인 KCC에서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에게 생생한 지식을 전달해 주 감사드린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KCC가 보유한 우수한 친환경 제품은 물론, 앞선 기술력을 접하게 돼 KCC가 친환경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세미나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학생들에게는 물론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뜻 깊은 행사인 이 같은 세미나가 향후에도 지속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

• 문의 : KCC 고객센터 080-022-8200, www.kccworld.co.kr